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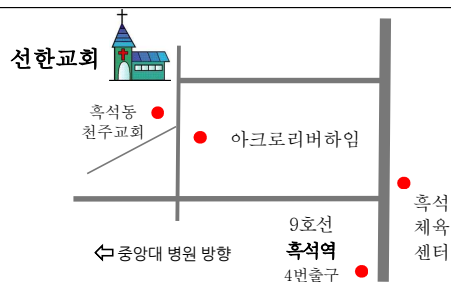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장 로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1:10)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7장 (통일찬송가 27장)
교 독 문		교독문 9 (시편 15편)
찬 양 과 경 배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대 표 기 도		박 영 근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장 10 ~ 17절
설 교		고린도교회 분쟁문제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마음 (잠16:21-33)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신청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일독하신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	---

가정예배

축복, 나 때문인가? 누구 덕분인가?

찬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통 460)

본문 :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점철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일으키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29절) 롯은 본인의 능력과 믿음으로, 본인의 기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삼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 병자가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중풍 병자는 도저히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4명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실린 채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인파로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침상을 예수님이 머물던 집 지붕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뚫습니다. 중풍 병자는 지붕을 통해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침상에 누운 상태로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 병자와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은 중풍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시며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눅 2:5)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중풍 병자를 고쳐주겠다고 결심할 때, 예수님은 환자 본인의 믿음만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4명 친구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 심지어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나의 노력과 능력보다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왔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 덕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은혜를 받았고, 중풍 병자가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믿음과 기도보다 부모님의 믿음, 배우자의 기도 덕분에 축복받은 것은 아닐까요.

어린 내 아들과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서 나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뿌린 눈물의 기도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닐까요. 얼굴조차 희미한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헌신, 믿음으로 내가 축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내 믿음과 기도로 누군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는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고린도교회 분쟁문제 (고전1:10-17)

서론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를 점검해 봅니다.

본론

1. 고린도교회 문제: 분쟁

- (1) 글로에의 집 편으로 전해진 소식: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11절)
- (2)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12절)
- (3) 사도 바울의 권면:
 - 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10절)
 - ②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10절)
 - ③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13절)
 - ④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17절)

2. 교훈

- (1)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 (2) 내가 좋아하는 쪽만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 (3)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고 있는가?

결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진정한 순종의 길입니다	날짜 : 3월 8일
찬양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본문	마태복음 21:23-32		
말씀요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는지 되물으십니다. 말로만 하겠다하고 실행하지 않는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도'로 온 요한을 믿은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목상질문 1	누가 준 권한인가? 21:23-27 침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물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답했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목상질문 2	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나? 21:28-32 두 아들 중 누가 참되게 순종한 아들인가요? 말로는 주님 뜻에 순종한다 해 놓고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21:31-32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불순종하지만 결국 죄를 뉘우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후자는 세리나 창녀 같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거짓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입술에서만 맴돌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날마다 돌이켜 말씀을 인정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외치는 공허한 무리가 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진실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초대받은 사람들”	
찬양과 기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새 324)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결혼식을 예배 예식으로 하고자 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주례를 부탁하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책임 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주례를 부탁받으면 두 가지 제안을 신랑과 신부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날까지 QT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QT를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문자로 주고받고, 주례자에게도 보내도록 합니다. 결혼 준비 기간에 하는 QT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말씀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녁 전화 통화를 통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숙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 다. 주례자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예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주인공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위에 두 가지 임무를 진심으로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가정들은 지금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을 때 누린 은혜의 간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2:1~14
목상포인트	하나님 나라는 초대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초대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보냄 받은 종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행 20:24)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나요?(2~6절)
적용하기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있나요? 복음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천국 잔치에 값없이 “오라!” 불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초대를 소중히 여기고, 구원의 천국 잔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부활 소망으로 섬길 산 자의 하나님	날짜 : 3월 12일
찬양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서		
본문	마태복음 22:23-33		
말씀요약	상속자 없이 죽은 만인을 대신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도 자식 없이 죽고 이 일이 여섯 동생에게 차례로 일어날 경우, 부활 때 형수는 누구의 아내이겠는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은 서로 혼인함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가르치십니다.		
목상질문 1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의 질문 22:23-2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례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나요? 성경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품었던 오해는 무엇이었나요?		
목상질문 2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22:29-33 사두개인의 두 가지 오해는 무엇인가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그 일의 비중은 어떠할까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2:29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적 질서가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약한 형제를 돌봅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법 또한, 홀로된 여인을 위해 가족이 저야 할 돌봄의 의무가 핵심입니다(신 25:5). 율법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시 85:10)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은혜의 비전입니다. 이 법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한 무지요 오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논리와 이성의 판단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어느새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며 지낸 제 삶에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소서.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격,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	날짜 : 3월 9일
찬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본문	마태복음 21:33-46		
말씀요약	예수님이 다른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우고 타국에 갔는데, 추수 때 열매를 받으려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집주인이 돌아오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비유인 줄 압니다.		
목상질문 1	욕심 많은 농부들 비유 21:33-39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휼과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내게는 없나요?		
목상질문 2	모통잇돌이신 예수님 21:40-46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1:40 역지사지,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단순한 질문만 던져도 죄의 덫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진실한 대답으로 돌이킬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저와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시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올곧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매일 Q.T.		하늘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	날짜 : 3월 10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본문	마태복음 22:1-14		
말씀요약	천국은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연 임금과 같습니다. 그가 종들을 보내 초청한 이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임금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더러 네거리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입은 자는 적습니다.		
목상질문 1	거절과 새로운 초대 22:1-10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자 그들 반응은 어떠했나요?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상질문 2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22:11-14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은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22:3, 14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탐하느라 영생의 자리, 구원의 시간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초대받은 제자도에 “아멘”, 하고도 십자가는 외면한 채 살지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구’로 듣지 말고 종말론적인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초대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구원자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믿지 않는 이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날짜 : 3월 11일
찬양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본문	마태복음 22:15-22		
말씀요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당원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놀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목상질문 1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의 계략 22:15-17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진퇴양난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가이사의 것 vs 하나님의 것 22:18-22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22:15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시하듯 목청을 높이는 질문자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답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답변이 아니라 논란과 소동, 자기 의를 드러낼 무대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이고 오해일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이들이 늘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오늘의 기도	매 순간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참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겉모양이 아닌 진정으로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임을 성실하고 신의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